



임기영

제구 안정 자신 > ‘감’ 잡았어~

KIA 5선발 안착

KT와 연습경기 6이닝 무실점
캠프·홍백전 평균 방어율 2.03
묵직한 직구·날카로운 변화구 위력

볼넷 줄이고 탈삼진 증가
선발로서 성적·안정감 합격점

가능, 오늘 NC전 선발 출전
KBO 리그 첫 리허설

KIA 타이거즈의 ‘잡수림’ 임기영이 사실상 남은 선발 한 자리를 확정했다.
KIA 임기영이 지난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스프링캠프 4경기에서 13이닝을 2.08의 평균자

책점으로 막았던 임기영은 앞선 홍백전 4경기도 2.00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았다.
임기영은 홍백전 4경기에서 18이닝을 소화하면서 16피안타(1피홈런) 8실점(4자책점)을 기록했고, 볼넷은 2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탈삼진은 16개를 뽑아내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24일 연습경기에도 볼넷 없이 18개의 아웃카운트 중 11개를 탈삼진으로 채우면서 기세를 이어갔다.
서재용 코치가 선발 조건으로 언급했던 ‘성적과 안정감’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임기영은 선발진에서 시즌을 시작할 전망이다.
임기영은 “몰아보면 직구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직구가 되니까 변화구도 통한다”며 “캠프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잘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마지막 3경기’가 임기영에게는 선발 경쟁의 큰 자산이 됐다.
지난해 3월 26일 시즌 첫 등판에서 옆구리 부상을 당하는 등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낸 임기영은 9월 세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다.
롯데, 두산, KT를 상대로 한 선발 세 경기에서 3.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감’을 잡았다. 특히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KT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선발 임무를 완수하면서 올 시즌 전망을

밝혔다.
임기영은 “지난해 마지막 세 경기에서 답을 많이 찾았다”며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도 괜찮고 처음에 1군을 상대로 많이 던지면서 내 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맞으면 어쩌나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 한, 두 경기 맞으면 안 좋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바로바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감으로 선발 경쟁을 사실상 마무리한 임기영은 ‘지금처럼’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
임기영은 “많이 준비하고 노력했다. 지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며 “시즌 때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에 시작하는 NC 다이노스와 연습경기에서는 새 외국인 투수 드류 가능성이 선발로 출격한다.
가능은 팔꿈치 통증으로 스프링캠프에서 2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홍백전에서도 12이닝을 던지는 동안 9개의 볼넷을 내주는 등 무뎠다.
지난 21일 KT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6이닝 퍼펙트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가능성은 27일 NC를 상대로 KBO리그 리허설을 치르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맙습니다 의료진... 힘내요! 대한민국”

KBO 코로나 극복 캠페인... 주요 인사들 SNS에 릴레이 메시지

KBO와 10개 구단이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진과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지 응원 이벤트로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과 야구팬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KBO 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KBO 정운찬 총재의 응원 영상을 시작으로 10개 구단 감독 및 선수, 이승엽 홍보대사 등이 참여해 릴레이 캠페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지목할 예정이다.
야구팬들이 참여하는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KBO는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 모자, 응원 도구 등의 용품을 활용해 KBO가 지정한 코로나



19 극복 희망 메시지와 해시태그(#KBO 리그가함께합니다 #B_TOGETHER_WITH_BASEBALL #힘내라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합니다)를 개인 SNS 계정에 올린 팬 총 50명을 추첨해 상품을 증정한다.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O 공식 인스타그램(@kbo.official)과 페이스북(@kbo1982), 유튜브(@kboleagu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골프 스타들 코로나 극복 ‘티샷’

다음달 2~3일 제주서 자선대회... 최혜진·유소연 등 20여명 출전

작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신인왕 이정은(24)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여왕 최혜진(21) 등 한국 여자 골프 간판스타들이 마칩내 필드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6개 프로 골프 구단은 오는 5월 2~3일 이틀 동안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 ‘함께 극복’ 골프구단 체리티 매치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대방건설과 동부건설, 롯데, 메디힐, 삼일제약, NH투자증권 등 국내 여자 골프 선수 20여명이 출전한다.
특히 대방건설 골퍼단 이정은과 롯데 소속의 최혜진과 이소영(23), 메디힐 후원을 받는 유소연(30)과 이다연(23), NH투자증권 골퍼단의 이미림(30), 이승현(29), 박민지(22) 등은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급 스타 플레이어들이라 팬들의 갈증을 씻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경기는 구단별로 2명씩 선수가 출전해 2대 2 매치



최혜진



유소연

플레이 방식으로 치른다.
6개 골프 구단이 3개씩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예선 리그를 치른 뒤, 그룹별 1위 간 결승전을 벌여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팀은 코로나19 극복기금 2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하게 된다.
관중은 입장할 수 없지만, SBS골프가 전 경기를 생중계하며, 네이버, 다음/카카오TV, U+골프 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메호대전’ 승자는 메시

세계 명장 7명중 4명 메시에 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이른바 ‘메호대전’ (메시가 낫나, 호날두가 낫나 논쟁)에서 세계적인 명장 7명 가운데 4명이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26일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조제 모리뉴 감독을 포함한 세계 최정상급 사령탑들이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GOAT(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 논쟁을 언급했다’라며 이들 감독의 평가를 전했다.
더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이끌었던 퍼거슨 전 감독과 모리뉴 토트넘 감독,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 페프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워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등 7명의 세계적 명장들이 남긴 평가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최고의 스타는 메시였다. 7명 가운데 4명이 메시의 손을 들었고, 1명은 ‘무승부’로 답변했다.
‘메시가 더 낫다’는 의견에 표를 던진 사령탑은 과르디올라, 벵거, 시메오네, 클롭 감독 등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메시가 분명히 최고다. 메시는 경기하는 방법은 물론 골 넣는 방법을 잘 아는 선수다.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라고 칭찬했다.
벵거 감독은 “메시는 호날두보다 창의적인 선수다. 메시가 더 예술적”이라고 말했고, 시메오네 감독도 “두 선수 가운데 고를 수 있다면 메시를 선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몸값, 호날두 넘었다

EPL 이적시장 전문매체 시장가치 851억 책정... 호날두 798억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의 몸값이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크트는 4월 전 세계 선수 시장가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손흥민의 예상 이적료를 6400만 유로(약 851억원)로 책정했다.
손흥민을 당장 데려가려는 팀은 이 정도 금액을 토트넘에 쥐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적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손흥민의 예상 몸값은 이전 8000만 유로(약 1064억원)에서 20%나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단연 1위였고, 전 세계 공격수 중에서는 로멜루 루카쿠(인터밀란)에 이어 19위에 자리했다. 분데스리가 득점 2위를 달리는 티모 베르너(라이프치히)가 손흥민 바로 뒤인 20위였다.
통상적으로 선수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봉은 올라가고 이적료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적료에는 선수의 미래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35살 베테랑이 된 호날두는 예상 이적료가 6000만 유로(약 798억원)로 공격수 중 23위에 올랐다. 손흥민보다 4계단 낮은 자리다.
호날두와 함께 축구계를 지배해온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1억1200만 유로(1490억원)로 8위에 올랐다. 메시는 32세로 호날두보다 3살 어리다.
킬리안 음바페가 1억8000만 유로(약 2395억원)로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했고, 네이마르(이상 파리 생제르맹)가 1억2800만 유로(1703억원)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